

(주소) 12283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전화) 031-579-6015 (팩스) 031-579-6042

배포일자: 2025.11.30. 보도일자: 2025.12.1.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실학, 리빙랩이 되다...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 한 자리에	2쪽	있음	https://silhak.ggcf.kr/	담당부서 : 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 담 당 자 : 김진아(579-6015)

실학, 리빙랩이 되다...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 한 자리에

- ▶ 실학박물관 지역자원 연계 확산 사업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공유포럼 및 전시 진행
- ▶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작은 실험, 10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보는 자리
- ▶ 전문가 특강부터 참여단체 발표까지, 뮤지엄 리빙랩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이 오는 12월 8일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2025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공유포럼: 실학, 리빙랩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실학박물관이 지역자원 연계·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5 작은 실험 지원사업 <실·실·실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뮤지엄 리빙랩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실·실·실 프로젝트'는 실학의 핵심 가치인 실천, 실용,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주민과 활동가가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실험하는 참여형 리빙랩이다. 실학자들이 탁상공론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 답을 찾고자 한 것처럼, 일상의 문제를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은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실학박물관은 선정된 10개의 프로젝트에 각 300만 원의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 선정단체 워크숍 등을 통해 실행 과정을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박물관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이관호 ICOM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박물관이 관람 공간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협력의 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살핀다. 이어지는 발제는 공공디자인 젤리장의 리빙랩 운영 사례 발표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일상의 문제를 함께 탐색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은 사례를 만나본다.

이어 실학박물관 임은옥 기획운영팀장이 <실·실·실 프로젝트>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

며, 서울연구원 라도삼 선임연구위원이 이끄는 토론으로 뮤지엄 리빙랩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마지막 순서로는 10개 선정단체가 개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현장감 있는 성과를 공유한다.

포럼과 연계해 성과공유평시도 함께 열린다. 전시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진행되며, 실학박물관이 지역연계 확산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온 과정과 <실·실·실 프로젝트> 참여단체의 개별 프로젝트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열 개의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 주거, 생태,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주제로, 실학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구현한다. 특히 낡은 정미소를 재생한 문화공간 용진정미소가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한 사례와, 두물물농부시장에서 농산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객에게 제철채소 쿠폰을 제공하고 요리대회를 열어 농부와 소비자가 함께 나누어 먹은 '제철채소 반찬대회' 등, 행정 영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단위의 지역 의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포럼과 전시는 단순한 결과물 공개를 넘어, 박물관이 지역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모델을 제시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뮤지엄 리빙랩에 대해 명시했으나 국내 뮤지엄에서 리빙랩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사례는 실학박물관이 처음이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실학은 본래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학문이었다"며, "이번 전시와 포럼을 통해 실학이 과거의 유물로 박물관 안에만 남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학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는 실학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시는 박물관 운영 시간 내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실학박물관 누리집(silhak.ggcf.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031-579-6015)으로 가능하다.

〈붙임 1〉 성과공유포럼 일정(안)

1. 추진개요

- 행 사 명 : 2025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공유포럼 : 실학, 리빙랩이 되다
- 행사일시 : 2025. 12. 8.(월) 14:30 – 17:30
- 행사장소 : 실학박물관 1층 열수홀
- 참석대상 : 〈실·실·실 프로젝트〉 참여단체, 지역 활동가,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 등
- 행사내용 : 〈실·실·실 프로젝트〉 운영 성과 소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참여단체 개별 소개 등

2. 추진목적

- 〈실·실·실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문가, 참여자, 관계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포럼 개최
- 사업의 철학적·학문적 의미를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장 방향 모색
-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에게 리빙랩형 박물관 모델을 소개하고 확산하여 정책적 확산 기반 마련

3. 주요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진행
14:30-14:40	개회사 및 축하	
14:40-15:10	[특강] 박물관의 변화와 확장	이관호(ICOM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15:10-15:40	[특강] 리빙랩 운영 사례	젤리장(공공 디자이너)
15:40-16:00	[발제] 실학박물관 〈실·실·실프로젝트〉 소개	임은옥(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장)
16:00-16:50	[토론] 〈실·실·실프로젝트〉의 발전 방안	좌장: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강연자 및 발제자
16:50-17:30	[전시 소개] 개별 프로젝트 소개	선정단체 10팀

4. 추진방침

-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 전시와 연계하여, 포럼이 단순 발표 행사를 넘어 사업의 결과물과 과정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구성
- 「2025 실학박물관 지역자원 연계확산 사업」의 타 프로젝트 성과를 함께 전시하여, 박물관의 다양한 지역협력 사례를 통합적으로 조명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
- 지역 농산물 활용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친환경 케이터링 운영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행사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절감 등 지속가능한 운영 원칙을 실천

〈붙임 2〉 〈실·실·실 프로젝트〉 선정단체 소개

송촌리용진정미소 재생추진모임	<p>〈송촌리 문화를 뿜다〉</p> <p>낡은 정미소를 재생한 문화공간 용진정미소와 양수리 소품숍 모퉁이놀이터와 협업하여 지역 이야기를 담은 문화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관광지(물의정원)로 유명한 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p>
두물물농부시장	<p>〈제철채소 반찬 축제〉</p> <p>친환경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두물물농부시장에서 농산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철채소 일일 반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농부들의 수익을 늘리고 농부와 소비자가 함께 식사하며 교류하는 '모두의 식탁'을 운영합니다.</p>
텔레떼	<p>〈두물머리 수다〉</p> <p>지역 제철 농산물을 활용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텔레떼에서 두물머리 인근의 맛집과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두물머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합니다.</p>
쓰임	<p>〈똥고(苦)생(生) 생태변기 만들기〉</p> <p>조안면 '없이있는마을' 공동체의 목공 동아리 쓰임에서 3세대 생태변기를 제작했습니다. 똥이 흙이 되고, 흙이 먹거리가 되어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모색합니다.</p>
아주심기연구회	<p>〈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p> <p>두물머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거 불안정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체 주거 사례를 탐색하며 함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해보았습니다.</p>
풀다발	<p>〈농부들과 이웃이 되는 마을 예술〉</p> <p>우리 마을의 농부들과 이웃이 되어 건강한 땅에서 난 작물에 관심 가지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예술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p>
(사)공공예술들로 화집단	<p>〈조안으로 가는 소풍〉</p> <p>조안면의 숨은 보물(장소, 사람, 물건)을 조사하고 그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와 서사를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p>
삼치와 이기리	<p>〈조용한 안식, 조안에서〉</p> <p>조안면을 주제로 만든 노래 '이곳이 좋아요'를 중심으로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관광지를 넘어 거주지로서의 조안면이 가진 매력과 이야기를 알리고, 지역의 사람들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임창민발효연구소	<p>〈함께하는 술, 지게미, 그리고 땅 이야기〉</p> <p>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식문화인 발효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고 재생 순환하는 네트워킹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술을 빚고 거른 뒤 음식과 술을 나누며, 퇴비를 만들었습니다.</p>
청춘터	<p>〈공정한 장터: 우리가 나누는 것들〉</p> <p>참여형 퍼포먼스와 바자회형 실험극의 결합으로 관객들과 함께 시간, 감정, 물건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공정한 분배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붙임 3〉 관련 사진



포럼 포스터



쓰임 〈뚝고(苦)생(生) 생태변기 개발〉



용진정미소 〈송촌리 문화를 빵다〉